

[ 경제 ]

■2008년 광주·전남지역 경제 전망

분야	생산	건설업	수출	소비	고용시장	물가	부동산가격
전망	☀️	☁️	☀️	☀️	☁️☀️	☔️	☀️

韓銀, 2008 광주·전남 경제 전망

성장·고용·소비 상승기류 탄다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성장과 고용,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8일 발표한 '2008년 광주·전남지역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지역경제는 물가 오름세 확대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고용·소비 등 3개 분야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체감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생산은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내수회복세 지속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북경올림픽 특수로 게임기와 휴대전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자동차·조선 등 수요산업의 전망이 밝은 '석유화학'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구소비재 회복세와 신차출시 효과로

물가 불안·대외 불확실성 불구 체감경기 개선 반도체·자동차·조선 수출 호조... 분양시장은 부진

'자동차'와 자동차 연관업종인 '타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개수공사로 생산능력이 확충된 '철강'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국산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호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에어컨 판매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전반적으로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가전·반도체·철강 등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대체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비부문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은 대형마트 입점 증가,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부진이 예상되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 자동차 판매의 신차 출시 효과 및 교체수요 시기 도래 등으로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은 내수회복세 속에 고용 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고, 부동산가격도 나주 혁신도시 착공과 여수엑스포 등 일부 개발예정지를 제외하면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서비스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크게 확대돼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도 혁신도시 건설과 여수엑스포 확충공사에 예정된 공공부문의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주택부문의 적체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분양시장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내년도 지역경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생산시스템과 제품 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해 고유가에 대비하고 환위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수지는 물가 오름세 확산방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

외국인 '셀 코리아' 사상 최대

신용 경색에 차익 실현을 주시 순매도 27조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륙한 지 15년 만에 가장 많은 액수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27조7천175억원으로 1992년 증시 개방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3~2004년에 순매수를 유지하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팔자' 기조를 고수하면서 무려 41조9천801억원 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연간 순매도 규모는 ▲2005년 2조9천559억원 ▲2006년 11조3천67억원 ▲2007년(11월까지) 27조7천175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현금 확보 움직임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6개월 연속 '팔자'를 지속했다.

장기투자자로 분류되는 뮤추얼펀드 중심의 미국과 영국 국적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외국인 큰손의 주식 수익 기반이 한층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국과 영국 국적의 자금은 각각 13조9천692억원, 8조7천785억원 가량 한국 증시에서 이탈했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올 들어 상장채권을 연간 사상 최대치인 27조713억원 순매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채권 보유액은 30조4천732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2001년 1천537억원 ▲2002년 4천564억원 ▲2003년 1조1천512억원 ▲2004년 2조289억원 ▲2005년 1조3천646억원 ▲2006년 1조7천713억원 ▲2007년(11월까지) 27조713억원 등으로 7년 연속 상장채권 순매수 전락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대선 랠리... 코스피 나홀만에 반등

21.65P ↑...1,861.47마감

대선 연휴를 앞둔 주식시장이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나홀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21.65포인트(1.18%) 오른 1,861.47에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전날 증가보다 6.98포인트(0.99%) 오른 709.47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인플레이션 고조와 경제성장 둔화 등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약세 출발한 지수는 장중 1,808.86까지 떨어졌다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반전했다.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앨런 그린스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스테그플레이션 경고에 투자자들이 움츠러들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한 시점까지 취약한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여파로 외국인도 국내증시에서도 7일째 매도세를 이어가며 부담을 줬지만, 개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6천499억원의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214억원, 3천127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투신(1천944억원), 기금(634억원), 보험(503억원)이 순매수를 주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로 2천161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LG필립스LCD는 대만 패널 제조업체의 우선주 인수 소식에 2.42%,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설립이 긍정적이라는 증권사 진단에 3.88% 올랐다.

반면 삼성전자는 보험, POSCO와 SK텔레콤은 각각 1.38%, 1.53% 떨어졌다.

한편, 대선은 하루 앞두고 지배구조 변경 기대감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증권이 각각 6.27%, 9.81% 급등했다. /연합뉴스

"기름값 내년에도 고공행진 지속"

세계 에너지전망

미국경제 약세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요인에 불구하고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내년에도 고유가 행진이 계속될 것이 라고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연구소(CGES)가 17일(현지시간) 전망했다.

CGES는 "원유생산량이 마침내 늘어나고 있지만 유가는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과 2008년까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GES는 또한 최신 월간보고서를 통해 올해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은 원유가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OPEC은 지난해 가을 발생했던 유가하락의 재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계를 원유부족상태로 빠뜨렸다"며 "그에 따라 올해 세계원유재고는 일일 42만5천배럴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유가가 치솟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의 상황은 OPEC의 주장과 달리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는 시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계 유가는 지난해 21일 배럴당 99.29달러의 기록적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OPEC은 이달 초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린 146차 장관회의에서 일일 원유생산량을 2천725만 배럴로 동결했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사랑의 연탄배달 아시아나항공 광주안 사장(맨 왼쪽)이 임직원들과 함께 18일 서울 동작구 상도4동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

"중소기업발 금융대란 가능성"

대출 잔액 351조... 상환 능력 악화 은행들 자금회수 강화땀 연쇄도산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대기업대출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로 급증한 가운데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의 여파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자금 회수를 강화할 경우 한계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중소기업발 금융불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중소기업 부실위험 높아졌다'라는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여건이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은 회복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수익성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대기업과의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7일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고 비금융업에 속한 1천636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 5.6%에서 지난해 4.7%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3분기에는 5.0%로 개선돼 2005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 4.9%에서 올해 3분기 2.5%로 계속 낮아져 3년 새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률 격차는 2004년 0.7%포인트에서 올해 3분기 2.5%포인트로 더 벌어져 수익성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채무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됐다. 영업활동에서 남긴 이익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은 200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4.2배와 4.1배로 비슷했으나 올해 3분기 기준 대기업은 3.3배로 소폭 나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1.3배로 2004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영업이익으로 겨우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증가액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60조5천억원으로 3년 전인 2004년 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해 10월말 현재 대출잔액(351조원)이 대기업대출(35조원)의 10배 가까운 규모이며 가계대출(360조원)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해지 쉬워진다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ARS로 가능

인터넷과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신청은 인터넷, ARS 등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면 해지는 은행·신용카드사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리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 공문에서 "카드 회원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거쳐 해지 의사를 밝히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카드 해지에 따른 회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미결제 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안내 등을 인터넷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카드사의 ARS를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안내 초기에 해지 메뉴를 삽입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종합전문요양기관 요건 강화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개선안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보다 강화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해야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2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10명 당 1명 이상의 의사를 고용해야만 한다.

또 의료인력이 많은 수목 가산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평가방식이 바뀐다.

복지부는 3년 마다 신청병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시설, 진료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업무능력 칭찬 듣고 싶다"

직장인, 자신감 생기고 업무 성과 향상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직장인 774명에게 '회사에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은 무엇인가'라고 설문한 결과 '업무능력에 대한 칭찬'이란 답변이 63.7%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적려차림의 칭찬'(9.3%), '업무 스타일에 대한 칭찬'(8.9%), '대인관계에 대한 칭찬'(4.4%)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들은 칭찬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무 분위기가 좋아진다'(27.1%)거나 '자신감이 생긴다'(23.3%), '업무성과가 올라간다'(20.2%)는 등 긍정적으로 보았다. '부담스럽다'(6.6%)거나 '근무태도가 안일해진다'(1.4%)는 등 부정적인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S&P환경기술	[경리/연구개발직] 정규직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11-624-0648
대창 E&T	SK텔레콤 개통업무 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1	062-383-6831
신진정밀*	설계(CAD)-유압밸브 부품 설계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21	062-954-0951
(재)한국경제연구소	연구원(경영, 경제, 회계분야)을 모집합니다.	대졸/경력3년	1600~1800	12/21	062-573-3500
첨단실버병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601-2131
미래산업	관리 및 영업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22	062-381-2577
클레이피아	사무직, 관리자, 총무직 경력사원 공채합니다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22	062-384-9688
월드테크	자동차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설치 가능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27	062-953-5875
태정산업*	전기설비직 모집공고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2/27	062-953-2300
퍼시스 광주센터	(주)퍼시스 광주센터 서비스관리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28	062-943-4600
시온드	오픈마켓 상품관리업무 경력직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2/28	062-223-1234
다원엔지니어링	시험기기, 차공구 개발 및 설계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31	062-952-6667
테크윌시스템	[광주]장규직 기술영업직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2/31	063-255-2071
성진케미칼	2007년 무연권리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43-811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정지선 부회장, 회장 승진

황해연 광주점장 상무보

현대백화점 임원인사 단행



<정지선 회장> <황해연 광주점장>

현대백화점은 정지선 부회장을 회장으로, 경청호 현대백화점 사장을 그룹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하는 등 정지선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인사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이규성 현대백화점 영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전무 5명, 상무 16명, 상무보 9명 등 모두 33명의 임원이 승진 또는 전보 발령됐다.

황해연 현대백화점 광주점장도 부장에서 상무보로 승진, 광주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정 회장은 2003년 1월 그룹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5년만에 35세의 나이로 그룹의 수장 자리에 앉게 됐다. 정 회장은 2001년 현대백화점 기획실장 이사를 맡아 2003년 부회장을 맡았으며 2006년 정몽근 전 회장이 명예회장에 오르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사실상 회장으로서 상무보로 승진, 광주점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정필수기자 bung@kwangju.co.kr